Global Market Report 17-053

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kotra

# Global Market Report

# 2018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

kotra
Korea Trade-Investment Promotion Agency

CONTENTS


요 약 / 1

Ⅰ. 2018 수출 전망 / 2

Ⅱ. 지역별 시장여건 및 전망 / 7

7 1. 북미
10 2. 중국
13 3. 유럽
16 4. 일본
19 5. 동남아·대양주
23 6. 인도
26 7. 중동(북아프리카 포함)
29 8. 중남미
32 9. CIS
35 10. 아프리카(사하라 이남)

# 요 약

## □ (전체) 우리나라의 '18년 수출은 전년대비 4.8% 증가한 6,064억 달러 전망

<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(억 달러, %) >

| 2016년 | | 2017년 | | 2018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금액 | 증감률 | 금액 | 증감률 | 금액 | 증감률 |
| 4,954 | △5.9 | 5,786 | 16.8 | 6,064 | 4.8 |

주 : 2017년은 추정치(11.20일까지의 누계 증감률 적용), 2018년은 KOTRA 전망치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662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## □ (지역별)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 대부분 지역 수출 증가 지속

○ (선진시장)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**제조업 수입수요 확대**,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**첨단산업 성장이 수출 증가 견인**

○ (신흥시장) 중산층 확대에 따른 **소비시장 성장**, 정부 주도 **제조업 육성, 개발 정책 적극 추진**으로 **수출 증가 예상**

○ 단, 대양주는 '17년 선박류 수출 급증에 대한 기저효과, 중동(북아프리카 포함)은 유가회복 지연 및 정치 불안 우려로 우리 수출 감소 전망

< 지역별 수출 증가율 전망(%) >

| 북미 | 중국 | 유럽 | 일본 | ASEAN | 대양주 | 인도 | 중동 | 중남미 | CIS | 아프리카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.9 | 8.0 | 1.5 | 4.5 | 10.6 | △8.0 | 8.8 | △5.4 | 3.8 | 10.4 | 0.4 |

* 지역구분: 중국(홍콩, 대만 포함), 중동(북아프리카 포함)

## □ (품목별) 일반기계, 자동차, 반도체, 컴퓨터, 철강, 석유화학은 수출 증가, 평판디스플레이, 선박류는 수출 감소 전망

○ ICT, 로봇 등 첨단산업 성장(일반기계, 반도체), 수요 증가(컴퓨터, 석유화학) 및 신흥시장 제조업 육성 정책 및 소비력 증가(철강 제품 및 자동차)

○ 선박 수주 잔량 감소(선박류), 현지 기업과의 경쟁 심화(평판디스플레이)

# Ⅰ 2018 수출 전망

## □ (전체) 우리나라의 '18년 수출은 전년대비 4.8% 증가한 6,064억 달러 전망

○ 우리나라 수출은 '15~'16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 기록한 이래, '17년 플러스 반등 후 18년 회복세 지속 전망

* 수출증감율 : ('15) △8.0% → ('16) △5.9% → ('17e) 16.8% → ('18e) 4.8%

○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제조업·IT 경기 호조, 한·중 관계 개선,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주력품목 단가 상승 등 양호한 교역여건 유지

- 다만, 글로벌 보호무역주의, '17년 수출 급증 기저효과, 북한발 리스크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 가능

**<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>**

(단위 : 억 달러, %)

| 2016년 | | 2017년 | | 2018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금액 | 증감률 | 금액 | 증감률 | 금액 | 증감률 |
| 4,954 | △5.9 | 5,786 | 16.8 | 6,064 | 4.8 |

주 : 2017년은 추정치(11.20일까지의 누계 증감률 적용), 2018년은 KOTRA 전망치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662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○ 주요 기관들은 '18년 세계상품 교역이 1.4~4.4% 증가할 것으로 전망 (물량 기준)

* IMF('17.10월): ('17e) 4.3% → **('18e) 4.1%**, OECD('17.11월): ('17e) 4.8% → **('18e) 4.1%**
WTO('17.9월): ('17e) 3.6% → **('18e) 3.2% (1.4~4.4%)**

## □ (지역별)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전망

○ **(선진시장)**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제조업 수입수요 확대,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 산업의 성장이 수출 증가 견인

- **(북미)** 美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른 우려가 있으나 IT 등 첨단 융합산업 시장 확대로 **전년대비 1.9% 수출 증가** 전망
- **(유럽)** 완만한 경기 회복세, 차세대 산업 육성·GVC 재편에 따른 신성장 기회로 **전년대비 1.5% 수출 증가** 전망
- **(일본)**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한류의 재점화,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수요창출로 **전년 대비 4.5% 수출 증가** 전망

○ **(신흥시장)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시장 성장**, 정부 주도 **제조업 육성 및 개발 정책 적극 추진**으로 **대부분 지역 수출 증가 예상**

- **(중국)** '17년에 이어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며 중산층 소비력 확대, 사드 피해 완화로 전년 대비 **8.0% 수출 증가** 전망
- **(ASEAN)** 경제 통합가속화,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로 전년 대비 **10.6% 수출 증가 전망**
- **(인도)** 경제개혁 속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제조업 육성,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추진으로 **8.8% 수출 증가** 전망
- **(중남미)** 경제 회복세 지속, 경제 통합 가속화 및 교역 다변화 정책 추진으로 **3.8% 수출 증가** 전망
- **(CIS)** 러시아 경제의 안정화, 러시아, 우즈벡 등 주요국 경기부양 및 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**10.4% 수출 증가** 전망

○ **對대양주 수출은** '17년 선박류 수출 급증에 대한 기저효과로 8.0% 감소, 중동(북아프리카 포함)은 유가회복 지연 및 정치불안 우려로 5.4% 감소 전망

**< 2018년 지역별 수출 전망 >**

(단위: 억 달러, %)

| 지역 | 2016년 | 2017년 | | | 2018년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금액 | 금액 | 증감률 | 수출비중 | 금액 | 증감률 | 수출비중 |
| 전세계 | 4,954 | 5,786 | 16.8 | 100.0 | 6,064 | 4.8 | 100.0 |
| 북미 | 713 | 738 | 3.5 | 12.8 | 752 | 1.9 | 12.4 |
| 중국 | 1,694 | 1,955 | 15.4 | 33.8 | 2,111 | 8.0 | 34.8 |
| 유럽 | 572 | 684 | 19.6 | 11.8 | 694 | 1.5 | 11.4 |
| 일본 | 244 | 269 | 10.1 | 4.6 | 281 | 4.5 | 4.6 |
| ASEAN | 745 | 952 | 27.8 | 16.5 | 1,053 | 10.6 | 17.4 |
| 대양주 | 171 | 292 | 70.9 | 5.1 | 269 | △8.0 | 4.4 |
| 인도 | 116 | 155 | 33.8 | 2.7 | 169 | 8.8 | 2.8 |
| 중동 | 262 | 252 | △4.0 | 4.3 | 238 | △5.4 | 3.9 |
| 중남미 | 254 | 283 | 11.6 | 4.9 | 294 | 3.8 | 4.8 |
| CIS | 69 | 94 | 36.3 | 1.6 | 104 | 10.4 | 1.7 |
| 아프리카 | 88 | 78 | △11.5 | 1.3 | 78 | 0.4 | 1.3 |

주1) 2017년은 추정치(11.20일까지의 누계 증감률 적용), 2018년은 KOTRA 전망치
주2) 지역구분 : (중국) 홍콩, 대만 포함, (중동) 북아프리카 지역 포함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662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## □ (13대 주력 품목별) 수출 증가 6개, 현행 유지 5개, 수출 감소 2개 예상

· **(호조)** 4차 산업혁명, 중국 수요 급증으로 **일반기계, 반도체,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**가 예상되며, 신흥시장 제조업 육성 정책 및 소비력 증가로 **자동차, 컴퓨터, 철강도 수출 호조 전망**

· **(부진) 선박류는 '17년도 실적 급증 기저효과, 수주 잔량 감소로 수출이 감소**할 것으로 전망되며, **평판디스플레이 또한** 중국 등 현지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**수출 부진** 예상

○ **(일반기계)** 북미·유럽·일본 등 **선진시장의 생산 설비 자동화 수요**, ASEAN, 인도 등 **신흥시장의 설비·건설투자 확대**로 **기계 수요 증가** 전망

- 중동은 재정문제로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연기·취소되고 중남미는 멕시코의 NAFTA 재협상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수입 감소 전망

○ **(자동차·자동차부품) 자동차 수출은 증가가 예상**되나 **자동차부품 수출은 '17년과 비슷**할 것으로 전망

- (자동차) 유럽, 대양주의 민간소비 개선, 신차 구입수요 증가 및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시장점유율 확대로 수출 증가 예상

- (자동차부품) 인도, 중남미, CIS 등 신흥시장의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라 부품 수요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자국산 부품 우선 구매 정책으로 인해 상승폭은 제한적

○ **(석유화학·석유제품)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**되나, **석유제품은 수요 감소와 경쟁 과열로** '17년 유사할 것으로 전망

- (석유화학) 국제유가 안정세 및 중국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

- (석유제품) 대체재인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및 미국,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

○ **(반도체)**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단가 상승*으로 **중국, ASEAN, 인도 등 수출 호조** 예상

* DRAM 가격(4Gb, $): ('16.1월)1.89 → ('16.6월)1.51 → ('17.1월)2.99 → ('17.11월e)4.81

- 반도체는 '17년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거양한 데 이어 '18년에도 수출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

* '17.11월 누적 기준 883억 달러로 기존 최대 실적인 '15년 629억 달러를 크게 상회

○ **(평판디스플레이)**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TV 수요 확대로 **OLED 수출은 확대**되는 반면, **LCD는 수출 단가 하락 및 수요 감소가 지속**될 전망

* LCD 단가('16.11→'17.11e, $) : [50" TV] 164→145(△11.6%), [21.5" 모니터] 54→47(△13.3%)

- 한편, 중국 현지 업체들이 자체 생산라인을 확충하며, 수입품을 자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

○ **(무선통신기기)** 현지생산이 확대되면서 **완제품 수출은 감소하나 관련 부품 수출이 감소분을 상쇄하여 수출규모는 전년과 유사** 전망

- 중국산 **중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**, 신흥국의 수입 완제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 등 **자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**으로 완제품 수출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 가능성

○ **(컴퓨터·가전) 컴퓨터는 고사양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**할 것으로 전망되나 **가전은 현지 생산 비중 확대**로 인해 **수출 증가 제한적**

- (컴퓨터) 중국 고사양 컴퓨터 수요 증가, 태블릿 PC 신제품 출시 효과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중국, 대만 브랜드 등과의 경쟁 치열
- (가전) 중국, 유럽, 인도 등 주요 투자진출지역 대상 현지 생산 확대

○ **(섬유류)** ASEAN, CIS*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어 **'18년 수출은 전년과 유사**

* '17년 상반기 對시베리아 한국 합성 섬유 수출량 전년 대비 약 60% 증가

○ **(철강)** 중국발 과잉공급에도 불구, ASEAN·인도·중동 등 **신흥시장의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수요 증가**로 **철강 수출은 증가** 전망

- ASEAN, 인도의 **인프라, 건설 프로젝트**, 일본 및 중동의 **대형 국제 행사를 앞둔 인프라 정비** 등이 수요를 이끌 것으로 예상

* 일본 2020 도쿄 올림픽, 두바이 엑스포 2020 등

○ **(선박)** 대양주 지역에서의 **수주 물량이 '17년에 집중적으로 인도**되면서 발생한 **수출 급증분에 대한 기저 효과** 및 **수주 잔량 감소로 수출 부진** 전망

* 선박 수출액 3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.0% 증가('17.11월 누적 기준)

## < 2018년 지역별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>

| 품목명 (MTI코드) | 2018년 수출 전망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품목별 종합 | 북미 | 중국 | 유럽 | 일본 | 아세안 | 대양주 | 인도 | 중동 | 중남미 | CIS | 아프리카 |
| 지역별 종합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일반기계 (71,72,75,79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자동차 (741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자동차부품 (742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평판디스플레이 (836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반도체 (831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무선통신기기 (812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전 (82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컴퓨터 (813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섬유류 (4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철강제품 (61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석유화학 (21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석유제품 (133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선박류 (746) | | | | | | | | | | | | |

대폭 증가(10% 이상 ) 소폭 증가(3～10%) 현행 유지(0～3%)

소폭 하락(0～-10%) 대폭 하락(-10% 이상)

* 지역구분 : (중국) 홍콩, 대만 포함, (중동) 북아프리카 지역 포함
* 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662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# II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

## 1 북미 [1.9% 증가]

수입규제 조치 확대 등 美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가 우려되나 미국의 완만한 성장세와 첨단산업 시장의 성장으로 우리나라의 '18년 對북미 수출은 **전년 대비 1.9% 증가 전망**

### 가. 2018년 시장 여건

#### □ 미국은 성장세 지속될 전망이나 캐나다는 둔화 예상

○ (미국) IT 등 첨단산업 시장규모 확대, 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확장으로 경기 회복 지속 전망

*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1.5%→ ('17e) 2.2% → ('18e) 2.3%

- (소비) 고용시장 호조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개선,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효과, 양호한 소비 심리 등

- (투자)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국내외 수요 증가, 감세 및 규제 완화 등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

○ (캐나다) '18년 경제 성장률은 '17년과 비교하여 다소 줄어들 전망이나 양호한 회복세 예상

*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1.5%→ ('17e) 3.0% → ('18e) 2.1%

- (소비)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로 주택건설·가계소비 위축 예상

* 금리인상 현황 : (~'17.7.11.) 0.5% → ('17.7.12.) 0.75% → ('17.9.6.) 1.0%

- (투자) 정부 공공인프라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업계 설비 투자 확대 예상

#### □ 미국우선주의(Buy American, Hire American)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

○ 신규 및 기체결 무역협정의 조정, 환율 압박, 해외 투자 억제 정책 등

- (무역협정) TPP철회, NAFTA, 한-미 FTA 재협상 등

- (해외투자) 해외이전 억제 및 리쇼어링(reshoring)* 지원 정책 추진

* 리쇼어링 :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

## 나. 2018년 수출 환경

### □ 美 첨단 융합산업의 가파른 성장 및 시장규모 확대

○ (3D 프린팅)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 가속
* 미국 제조업체의 70% 이상이 제품 생산에 3D 프린팅 기술 활용

○ (IoT) 사물 인터넷 3대 분야(스마트홈, 스마트시티, 커넥티드카) 급성장 전망
* (스마트홈) 2020년까지 미주 스마트홈 시장, 약 2배 성장 전망, ('17e) 146억$ → ('20e) 284억$

○ (인공지능) 주요 기업들의 인공지능 로봇 개발 및 활용분야 확대 지속
* 북미, 세계 최대 인공지능 시장으로 전 세계 시장의 77.5% 차지(맥킨지컨설팅)

○ (AR/VR) 美 AR/VR시장, 2021년까지 평균 12.5% 성장 전망
* (세계시장규모) 2021년까지 연평균 113.2%의 성장 전망, ('17e) 114억$ → ('21e) 2,150억$

### □ 美 반덤핑 등 수입규제, 통상법을 통한 제재 강화 예상

○ (수입규제) 철강, 화학, 섬유 등에 대한 반덤핑, 상계관세 등 조치 강화
*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, 합성단섬유, 냉간압연강관, PET 수지, 탄소합금강선재, 원추 롤러 베어링에 대한 반덤핑 협의 조사 진행 중

○ (수입제재) 무역법 301조, 무역확대법 232조 등 무역법 조항을 활용 확대
*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, 제도, 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 여부 조사에 착수
* 무역확대법232조에 의거, 철강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지시

### □ 한-캐 FTA 관세 인하로 인한 기회 요인과 NAFTA로 인한 위기 요인 혼재

○ (FTA) FTA 발효 3년차로 관세인하 품목 확대 (무관세 및 80%이상 인하품목 97.5%)
- 관세양허 유형C* 해당 359개 품목 관세율 전년대비 20% 인하
- 자동차 및 관련부품 29개 품목 혜택 → 부진요인 상쇄 변수
* 협정체결 이후 5년간 균등철폐 (2019.1.1. 완전관세철폐)

○ (NAFTA) NAFTA 재협상 불확실성 증가로 자동차 부품 수출 악화 전망
- 내년 전망 악화에 따라 관련제품 수출약세는 지속될 전망
* '17년 캐나다 승용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 기록했으나 국산차 판매는 감소

## 다.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### □ (소폭증가) 일반기계, 반도체, 가전, 컴퓨터, 석유화학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일반기계<br>(71,72,75,79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2017년 미국 경기회복, 설비투자 확대<br>○ 미국 건설경기 호조, 한국 기업(S사, L사 등)의 현지 투자에 따른 신설공장 설비 수요 확대 |
| 반도체<br>(831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IOT, 빅데이터 서비스 등 美 첨단 융합산업의 가파른 성장 및 시장규모 확대<br>○ 美 반도체 산업은 '18년에도 증가 기조는 유지할 것이나 하반기부터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현지 시장조사기관 전망 (IHS 보고서) |
| 가전<br>(82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한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며, 프리미엄 제품의 브랜드 로열티도 강화<br>○ 부동산 및 건설경기 회복으로 신규 주택 건축 및 관광 개발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|
| 컴퓨터<br>(813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美 PC 시장의 수요 회복이 기대되며 특히, 데이터센터·서버 등 SSD 수요 확대에 따른 단가·물량 상승 전망<br>○ 한국 기업의 강세 품목인 컴퓨터 모니터 또한 시장 점유율이 유지 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|
| 석유화학<br>(21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유가 상승 및 국내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물량 확대로 수출 호조세 지속 예상<br>○ 독일, 네덜란드, 일본 등 경쟁업체의 설비보수 등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수출확대 증가 가능성 |

### □ (소폭감소) 자동차부품, 철강제품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자동차부품<br>(742) | 소폭감소<br>(0~-10%) | ○ 자동차 생산 공장 가동률 하락,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악화 등으로 자동차 생산·판매 둔화 예상 |
| 철강제품<br>(61) | 소폭감소<br>(0~-10%) | ○ 美, 캐나다의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될 전망. 바이어들도 수입 오더 축소<br>* 美캘리포니아주, "Buy Clean California Act" 발표하여 건축자재 조달시 탄소배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업체 우대<br>* 캐나다 국경관리청(CBSA)의 수입규제 강화 가능 |

# 2 중국 [8.0% 증가]

중국의 안정적 성장과 개혁개방 확대 정책, 그리고 한-중 관계 회복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으로 '18년 우리나라의 **對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8.0% 증가할 것으로 전망**

## 가. 2018년 시장 여건

### □ 시진핑 2기 집권에 따라 구조 개혁과 안정적 성장 예상

○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와 정부 확대 재정정책에 힘입어 중저속 성장 지속 전망

○ 국유기업 개혁, 금융 당국의 관리·감독 강화 및 부동산 규제 정책 등에 따라 성장률은 '17년 대비 둔화 예상

*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6.7%→ ('17e) 6.8% → ('18e) 6.5%

### □ '개혁개방 40주년' 및 '일대일로' 정책으로 개방 및 투자 확대

○ (개혁 개방 2.0시대) 자유무역항, 슝안신구*를 필두로 한 지역개발, 산업개혁을 통해 중국 개혁개방 2.0을 위한 개방정책 실시 예정

* 시진핑 주석이 실시하고 있는 징진지(京津冀)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으로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바오딩(保定)에 위치

- 핵심 키워드인 자유무역항, 슝안신구*를 필두로 한 지역개발, 산업개혁이며,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 지원 예상

○ (일대일로) 일대일로 연선 국가*에 대한 교역을 확대하고, 이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인 AIIB 자금을 활용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

* 총 65개국 (AESAN 10개국, 사아시아 18개국, 남아시아 8개국, 중앙아시아 5개국, CIS 7개국, 중동유럽 16개국 등)

### □ 美中 간 통상 갈등 리스크 우려

○ '17.11월 美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美-中간 우호적 협력 기반 조성했으나 美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통상 갈등 리스크 상존

* 트럼프, '17.11월 중국 방문에서 사상 최대 규모(약 2,535억 달러)의 경협에 합의

## 나. 2018년 수출 환경

### □ 중산층 소비력 확대, 사드 피해 완화로 소비재 수출 여건 개선

○ 중저속 성장시대, 내수 육성 정책에 힘입어 중산층의 소비력 확대

- 소득수준의 안정적 향상, 소비방식의 다양화, 소비환경 개선 등으로 내수소비와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축 전환

○ 한-중 사드 분쟁 화해 기조로 대중 수출 여건 회복 기대

- 피해가 집중된 관광 및 소비재 수출 및 통관, 인증 등에서의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

### □ '중국제조 2025'와 '인터넷 플러스'로 고부가가치 품목 수요 증가

○ (중국제조 2025) ICT 및 스마트 제조업 등 첨단기술 분야 수입수요 증가

- 중점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집약적 제조 방식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, 품질 및 브랜드 가치 향상, 환경 보호 등 질적 성장 도모

* 중점 프로젝트 : 제조업 혁신센터, 스마트제조공정, 공업기반 강화공정, 녹색제조 공정 등

○ (인터넷 플러스) 超연결, 大융합 시대를 관통하는 중국의 미래산업전략

- 제조업, 농업 등 인터넷과 산업의 융합, IoT, 클라우드 컴퓨팅, 인공지능, 보안 등 관련 산업 수혜 전망

### □ 개혁 개방 2.0 시대, 대외개방 및 무역·투자 확대 조치 시행

○ 통관 프로세스 간소화 및 페이퍼리스 통관 도입,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국 해관 통관 일체화 등 추진 예정

○ '17년에 자유무역구를 추가 지정하여 무역자유화 및 국제화 추진 확대

- 자유무역구 외자규제 네거티브 리스트(2017년 판) 발표로 무역·투자의 효과적 확대 추진

* 자유무역구 지정 현황('17.11월) : 상하이, 톈진, 광둥, 푸젠, 랴오닝, 저장, 허난, 후베이, 충칭, 쓰촨, 산시(陕西) 등 11개

## 다.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### □ (대폭증가) 반도체, 석유화학 (소폭증가) 컴퓨터, 석유제품, 선박류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반도체 (831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중국의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의 기술·생산력을 따라잡지 못해 수출이 증가할 전망 |
| 석유화학 (21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신증설 설비 등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, 전년 대비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|
| 컴퓨터 (813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컴퓨터 제품의 고(高)사양화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및 우리 제품이 경쟁력 있는 고사양 컴퓨터에 대한 수요 증가 |
| 석유제품 (133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중국 내 자동차 보유량*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한국산 고품질 경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수출 호조세 지속<br>* 중국 자동차 보유량: ('17e): 2.09억대 → ('18e): 2.3억대 |
| 선박류 (746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'18년 유가 안정이 예상되면서 선박 신규 발주가 늘고 조선 기자재 수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. |

### □ (소폭감소) 자동차, 자동차부품, 섬유류 (대폭감소) 평판디스플레이, 가전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자동차 (741) | 소폭감소 (0~-10%) | ○ 중국 현지 브랜드의 성장으로 시장 포지션에 있어 유럽보다는 한국, 일본 브랜드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 |
| 자동차부품 (742) | 소폭감소 (0~-10%) | ○ 사드 및 H사 현지 생산 중단 등 악재로 발생한 한국제품 수입 감소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|
| 섬유류 (4) | 소폭감소 (0~-10%) | ○ 중국 섬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국 제품과의 경쟁력이 치열한 가운데 사드 여파로 시장수요 잠식 |
| 평판디스플레이 (8361) | 대폭감소 (-10% 이상) | ○ 현지업체들이 자체 생산라인을 확충하면서 수입품을 자국산 부품으로 대체 |
| 가전 (82) | 대폭감소 (-10% 이상) | ○ 한국 업체들이 중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여 기존 수출 물량 대체 전망 |

# 3 유럽 [1.5% 증가]

유럽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, 차세대 산업 육성에 따라 수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브렉시트, IS테러 등의 불확실성으로 **우리나라의** '18년 **對유럽 수출은 전년대비 1.5% 증가 전망**

## 가. 2018년 시장 여건

### □ 완만한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

○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, 기업투자·고용확대 및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확대로 '17년에 이어 회복 지속 예상

*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1.8% → ('17e) 2.1% → ('18e) 1.9%

- '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모든 EU회원국 플러스 성장 지속 전망

* (독일) 1.8%, (영국) 1.5%, (폴란드) 3.3%, (루마니아) 4.4%, (이태리) 1.1%, (그리스) 2.6% 등

### □ 산업재편 본격화, 무역협정 아시아권으로 확대

○ 4차 산업혁명 연계 EU의 산업재편 본격 추진

- 유럽 주요국,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정책으로 추진 중, 첨단산업 육성 본격화

*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웨덴 등이 중심

- 'Digitalizing European Industry', 'Horizon 2020' 등 정책과 연계하여 대규모(총 1,270억 유로) 자금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

○ 일본과의 FTA협상 '17년 연내 타결, '19년 발효 목표로 협상 중

- 또한, ASEAN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FTA 협상 추진 중이며, 호주, 뉴질랜드 지역과의 관계 또한 심화한다는 계획

### □ 브렉시트·IS테러 등 불확실성 증대

○ 영국과 EU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양측 간의 협상 난항 예상

- 영국에 대한 투자·내수 위축 가능성, 경기 둔화 우려

○ 테러범의 난민 입국 사례 다수 발생으로 감정 악화, IS 테러 증가세

- '17년 유럽 주요국 총·대선에서 반난민·반EU 극우정당이 핵심 야권 세력으로 등극

* 네덜란드 총선(3.15), 프랑스 대선 경선(4.23), 독일 총선(9.24)

## 나. 2018년 수출 환경

### □ 한국의 수출 기회요인

○ **(주력산업)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원가 절감·수입선 다변화 추진**

- 조선기자재·기계류 분야, **기존 구매선을 아시아로 확대 추세**

* ABB(기계류), Maersk, Torm(조선기자재), Alstom(철도기자재) 등 아시아 제품 구매 확대

- 의료기기, **동유럽·북유럽을 중심으로 역외조달 증가세**

* 병원현대화 프로젝트 연계, 초음파 영상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, 치과기기에 대한 수입수요 확대

○ **(신성장동력) 차세대 산업 육성·GVC의 재편에 따른 유럽의 신성장 기회 부상**

- 유럽 주요국,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**'4차산업혁명' 열풍 확산**
- ICT융복합, 소재경량화, 친환경기술 등 차세대 기술협력 수요 증가
- 핀테크, IoT등 신기술분야 **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급증**

* Siemens 스타트업 VC "Next47"설립, Santander '14년부터 1억불 규모의 핀테크기술 투자 전문 Innoventures 운영, 삼성전자 '17년 베를린에 AI등 유럽 유망기술 발굴 VC "Samsung Next"설립

○ **(프로젝트) 동유럽 중심으로 ITS·환경·의료인프라 공공프로젝트 발주 확대**

- EU배정기금('14-'20) 집행률 달성을 위해 '18년부터 발주 프로젝트 증가

* '18년 발주 동유럽 진출유망 공공프로젝트는 총 22건 (동유럽 8개 무역관 조사결과)

### □ 한국의 수출 위협요인

○ **경쟁국의 진출 강화, 유럽 역내 교역비중 증가**

- 중국의 對유럽 M&A형 투자진출 급증 ('16년 총 309건, 역대 최대치)

* 그 외, 독일과 산학연 협력 활발 (Industrie 4.0 연계 총 18건의 협력 모델 진행)

- EU 역내교역 비중 지속 증가세, ('13) 57.2%→ ('14) 62%→ ('15) 63%→ ('16) 64%

* 특히 자동차부품의 역내교역 강화(역내조달 비중 85%)

○ **EU, 아시아권 대상 FTA 체결 확대 추진**

- 아시아권 중 유일하게 한국과 발효 중인 FTA, '18년~'19년 일본, 싱가포르, 베트남으로 확대 발효 전망

* 특히 일본과 對EU 주력 수출 경합품목이자 현재 EU의 對일본 수입관세율이 높은 승용차(5%~10%), 자동차부품(3%~4.5%) 분야에서 한국 수출 타격이 클 전망

## 다.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□ **(소폭증가)** 석유화학, 일반기계, 자동차, 평판디스플레이, 반도체, 컴퓨터, 철강제품, 석유제품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석유화학<br>(21) | 대폭증가<br>(10% 이상) | ○ 최근 북해산 브랜트유 가격 상승 추세 전망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 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증가 전망 |
| 일반기계<br>(71,72,75,79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동유럽권은 해외기업의 투자진출, 공장 설립/증설 등 건설 경기 호황으로 가성비가 좋은 한국산 수입 증가세 지속<br>○ 주요국(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) 4차산업혁명 정책 연계 설비자동화 등 제조업 현대화에 따른 수요 증가 |
| 자동차<br>(741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유럽 경기 호조 및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지도 개선 |
| 평판디스플레이<br>(836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고급사양 OLED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대형 패널의 시장단가가 전년 대비 평균 30~40% 상승 |
| 반도체<br>(831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4차 산업혁명 연계 유럽의 수입 수요 증가세<br>○ 휴대폰의 고사양화에 따라 D램 수출단가 상승 |
| 컴퓨터<br>(813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태블릿 PC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수출호조 전망이나 대만,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 |
| 철강제품<br>(61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한국산 철강 브랜드 인지도 대폭 개선 및 중국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확대 전망에 따른 반사이익 |
| 석유제품<br>(133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고품질 윤활유 제품에 대한 유럽 수요 증가세 지속 |

□ **(소폭감소)** 가전 **(대폭감소)** 선박류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가전<br>(82) | 소폭감소<br>(0~-10%) | ○ 한국 업체들의 현지 생산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예상 |
| 선박류<br>(746) | 대폭감소<br>(-10% 이상) | ○ '17년 높은 수출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 및 수주 잔량 감소 |

# 4 일본 [4.5% 증가]

일본 경제는 '17년 대비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정부의 적극적 양적완화 및 소비진작 정책 추진, 한류의 재점화, 올림픽 준비 특수로 **우리나라의** '18년 **對일본 수출은 전년대비 4.5% 증가 전망**

## 가. 2018년 시장 여건

### □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, '17년 대비 성장 폭은 축소 예상

*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1.0% → ('17e) 1.5% → ('18e) 0.7%

○ **(신성장전략)** Connected Industries*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구현될 사회 'Society 5.0' 실현 목표

* IoT 등에 의해 모든 것을 네트워크화하여 新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사회

- 자율주행, 로봇/드론, 스마트공장, 바이오/헬스케어, 우주 개발 등 육성하여 신규수요창출과 인재양성·생산성 확대

○ **(금융정책)** 미국과 EU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에도 불구, 일본은 물가안정목표(2%) 유지 위해 양적 완화를 지속

* 단기금리 -0.1%, 장기금리(10년물) 0% 수준으로 유지, 장기 국채는 보유 잔액 연간 80조엔씩 추가 매입

### □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및 올림픽 특수로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

○ **(정부정책)** 프리미엄 프라이데이*, 남성의 육아휴직 유도, 주4일 근무제 등 노동방식 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소비활성화 도모

*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15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조기 퇴근하는 제도

○ **(올림픽 특수)** 대회 개최('20년)를 앞두고 건설, ICT 투자 확대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경제 활력 및 고용창출 기대

* '13년~'20년까지 약 30조엔의 경제효과 및 약 200만명의 고용창출 유발 기대

### □ 美 대일 적자 개선 요구와 TPP 탈퇴 등이 불안정 요인

○ 미국의 대일적자 언급 및 환율 관찰대상국 분류 등 통상 압력

* '16년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689억달러 규모, 이 중 80%가 자동차 및 관련 부품

* 美재무부('17.10월) : 일본, 한국, 중국, 독일,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

○ 미국의 TPP 협정 탈퇴 및 이로 인한 발효 차질로 수출 확대 기대감 축소

## 나. 2018년 수출 환경

### □ 내수 회복은 긍정적이나 엔저는 우리 수출에 불리

○ 경기회복 및 고용환경 개선으로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태도지수 및 소매 판매액 증가 중

* 소비자태도지수는 2년 만에 최고치 달성, 소매판매액은 '16.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 ('17.9월)

○ 통화완화정책 지속으로 엔저 가능성 높아 우리 수출 가격경쟁력에 불리

* 원/엔 환율 : ('16.11월) 1,180 → ('17.11월) 975, 1년 만에 21% 하락

### □ SNS를 기반으로 한 한류의 재점화

○ 10대 위주 한국 아이돌 인기 상승 및 드라마 방영 재개로 한류 재조명

* '트와이스', '방탄소년단' 등의 성공적 진출에 이어, '도깨비' 등 드라마 잇달아 방영

○ 패션·뷰티, 식품, 게임·웹툰 등이 대표적인 한류 수혜품목으로 꼽힘

- (패션) 일본 10대 여성, 패션 스타일 참고하는 국가 1위는 한국

* 일본경제신문 설문 결과 10대 48%, 20대 26%가 한국을 패션스타일 참고 1위국으로 선정

- (식품) 치즈닭갈비, 빙수, 케이크 등 한국 디저트 인기몰이 중

- (컨텐츠) 젊은 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한류 이끄는 한국 게임·웹툰

* '리니지레볼루션2'는 출시 첫 날 모바일 게임 매출 1위 기록, 'NHN 코미코' 등 웹툰도 인기

### □ 「4차 산업혁명」으로 생산성 및 신규 수요창출

○ (건설) 건설 작업의 모든 과정에 ICT를 활용하는 'i-Construction' 추진을 통해 '25년까지 생산성 20% 향상 목표

○ (물류) 자율주행 및 드론을 활용해 물류·유통분야의 생산성 증대 추진

* '2020년 무인 자율주행에 의한 이동 서비스 실현' 목표

○ (의료) 의료·간호 시스템, 농업, 물류 등 활용분야 확대

* 기존 의료 및 간호 정보 등을 '보건 의료 데이터 플랫폼'으로 통합 구축하여 '20년도부터 가동

○ (농업) ICT 및 빅데이터 활용 '스마트 농업' 시스템 구축 계획

## 다.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□ **(대폭증가)** 평판디스플레이 **(소폭증가)** 일반·정밀기계, 가전, 철강제품, 석유화학, 선박류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평판디스플레이 (836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등 중소형 OLED 시장 확대,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OLED TV 수요도 증가 |
| 일반기계 (71,72,75,79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자동차, 전자기기 시장 호조, 플랜트 사업수주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 |
| 가전 (82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고기능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,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체육대회에 맞춰 TV 수출 상승세 유지 |
| 철강제품 (61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일본의 경기회복, 올림픽 인프라 투자,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확대 |
| 석유화학 (21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국제유가 회복으로 석유화학 제품 단가 상승 및 수출액 증가 |
| 선박류 (746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일본 조선업체의 한국 업체에 대한 주문 확대 계획 |

□ **(현상유지)** 자동차부품,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섬유류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자동차부품 (742) | 현상 유지 (0~3%) | ○ 한국 업체와 거래를 희망하는 일본 제조사가 늘고 있으나 엔화 약세로 수출액 감소 가능 |
| 반도체 (831) | 현상 유지 (0~3%) | ○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한국산 비메모리는 경쟁력 악화로 고전 예상 |
| 무선통신기기 (812) | 현상 유지 (0~3%) | ○ 日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상태이나,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웨어러블 기기는 수출 증가 전망 |
| 섬유류 (4) | 현상 유지 (0~3%) | ○ 일본 의류 시장 내 수입품 비중은 '16년 97.3%(수량기준, 日경제산업성)에 달했으며,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<br>○ 한편, 섬유는 중국, 동남아 제품과의 경쟁 등의 영향으로 감소 전망 |

# 5 ASEAN [10.6% 증가] · 대양주 [-8.0% 감소]

ASEAN은 경제 통합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'17년에 이어 안정된 성장과 긍정적 수출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**우리나라의** '18년 **對ASEAN 수출은 전년 대비 10.6%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** 대양주는 선박 인도 물량이 '17년에 집중된 기저효과로 **-8.0% 감소 전망**

## 가. 2018년 시장 여건

### □ ASEAN은 안정적 성장 지속, 대양주는 성장과 하락 요인 혼재

○ (ASEAN) 지역 내 무역투자 활성화와 내수시장 확대로, 경제성장률은 '18년 5.2%로 전망되어 전년과 동일한 수준 예상

*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4.9% → ('17e) 5.2% → ('18e) 5.2%

○ (대양주) 호주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세로 성장 반등, 뉴질랜드는 이민법 강화로 인한 소비, 투자 위축으로 하락 전망

* 호주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2.5% → ('17e) 2.2% → ('18e) 2.9%
* 뉴질랜드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3.6% → ('17e) 3.5% → ('18e) 3.0%

### □ ASEAN Vision 2020, AEC 2025 통합 전략을 통해 통합 가속화

○ '97년 창설된 ASEAN은 30주년을 맞아 통합 확대를 위해 'ASEAN Vision 2020'을 도입

* 아세안 정치-보안 공동체(APSC), 아세안 경제 공동체(AEC), 아세안 사회-문화 공동체(ASCC)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협력 및 통합 도모

○ '17년 2월, 세부지침으로서 'AEC 2025 통합 전략 계획안(CSAP)' 발표

* 통합전략 5대 주제 : ① 통합 경제 구축 ② 경쟁력 높은 혁신 경제 ③ 연결성 및 협력 강화 ④ 사람 중심 아세안 ⑤ 글로벌 아세안

### □ 다자 통상협정 적극 참여로 대외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

○ (TPP) 미국의 탈퇴로 TPP 11개* 회원국은 TPP 협정의 새로운 명칭인 CPTPP를 '18년에 서명, '19년에 발효키로 합의

* 회원국 : **브루나이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호주, 뉴질랜드,** 일본 캐나다, 멕시코, 칠레, 페루 등 11개국

○ (RCEP) 아세안 10개국과 대양주 2개국이 모두 참여하며 2018년에 타결 목표로 협상 중

* 회원국 : **ASEAN(10개국), 호주, 뉴질랜드**, 한국, 중국, 일본, 인도,

## 나. 2018년 수출 환경

### □ (ASEAN)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견고한 경제 생태계 구축

○ 부품·소재산업 육성으로 산업 구조 강화

- 아세안 주요 국가들은 원천기술 부족으로,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 및 장비를 한국, 중국 등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분야 수입 증가 전망

○ Industry 4.0 (4차 산업혁명) 패러다임 적극 대응

- 전자정부, 전자상거래, 운송, 헬스케어, 교육, 환경,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

○ '무역원활화'와 '디지털경제' 중점 추진

- 'ASEAN 자기인증제도'와 'ASEAN 단일창구'를 실현, 기업들의 국제화 및 역내 재화의 이동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
- 아세안 역내 국가 간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 규정을 간소화할 것

○ 인도네시아 '2018 아시안게임' 특수로 프로젝트 진출 기회

- 경기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, 도로, 대중교통, 치안 등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로 건설자재 등에 대한 수요 증가

* 최근 중국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입찰 공고에 '유럽, 일본, 한국 제품 우선' 등의 조건이 포함

### □ (대양주)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기회와 위기 상존

○ FTA 수혜 품목 및 추가 관세 철폐 대상 품목 호조 전망

- 한-호주 FTA 발효 5년차, 한-뉴 FTA 발효 2년차, 관세철폐 효과 가속화 전망

* (호주) '18.1.1부 일부 의류, 신발, 석면제품 및 플라스틱 판·시트 등 포함 411개 품목의 관세 추가 철폐. 전체 교역품목의 99.4% 무관세 혜택

○ 호주 수입규제 조치 강화로 철강업계 타격 우려

- 한국산 구조용 강관, 냉연강판, 도금강판, 코일 등이 주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

* '17년 호주 반덤핑 위원회에 접수된 철강 제품 중 한국산은 총 35건 (12.11일 기준)

## 다.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### ① ASEAN

□ **(대폭증가)** 일반기계, 평판디스플레이, 반도체, 가전, 철강제품, 석유화학
**(소폭증가)** 자동차, 섬유류, 무선통신기기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일반기계 (71,72,75,79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고정 수요가 많은데다 경쟁국 제품들에 비해 납기일이 짧아 현지 바이어들의 선호도 지속 증가 |
| 평판디스플레이 (836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우리 기업의 현지 모바일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수요와 TV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|
| 반도체 (831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한국 전자제품 업체들이 판매 호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현지 생산을 위한 부품 수요 증가 |
| 가전 (82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아세안 지역의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에 따라 품질이 좋은 한국 가전제품 선호 추세 |
| 철강제품 (61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'18년 말레이시아 정부 인프라 사업 등 현지 각종 프로젝트들이 발주됨에 따라 철강 수요 증가 전망 |
| 석유화학 (21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로 관련 제품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쟁사의 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|
| 자동차 (741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정부 지원정책 시행으로 신차 교체 수요 증가 전망 |
| 무선통신기기 (812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현지 진출기업의 생산 확대로 부품 수요 증가 예상 |
| 섬유류 (4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베트남 현지 생산 섬유·의류제품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세로 내년도 수출량 증가 예상 |

□ **(소폭감소)** 석유제품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석유제품 (133) | 소폭감소 | ○ 메이저 공급자들의 현지 생산 설비가 구비되면서 수입제품 경쟁 악화 |

## ② 대양주

□ **(대폭증가)** 자동차, 평판디스플레이 **(소폭증가)** 일반기계, 자동차부품, 무선통신기기, 가전, 섬유류, 석유화학, 석유제품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자동차 (741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한-호주 FTA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경쟁력 향상, 중고차와 신차의 가격차 감소 등으로 신차 수요 증가 |
| 평판디스플레이 (836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한국산 브랜드 제품이 호주 TV시장의 1, 2위를 다투고 있으며 '18년에도 점유율 확대 전망 |
| 일반기계 (71,72,75,79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한국산 기계 가격 대비 성능 우수, 엄격한 사후관리로 인지도 지속 상승 중 |
| 자동차부품 (742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호주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면 철수함에 따라 Genuine 부품의 수요는 감소할 수 있으나, 애프터 마켓 제품의 한국 부품 수요는 증가 전망 |
| 무선통신기기 (812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한국산 휴대폰에 대한 현지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신제품 출시 효과로 수출 증가 예상 |
| 가전 (82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일반 가전제품 외에도 프리미엄 라인 제품의 시장 확대 전망 |
| 섬유류 (4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의직물, 섬유, 순면 등의 한국산 제품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<br>○ 한-호주 FTA로 인해 '18년 1월 1일, 일부 직물,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기존 관세 철폐 효과 기대 |
| 석유화학 (21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호주 내 석유화학 제품 제조사들의 철수 및 인수 합병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안정화로 한국산 제품 수입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|
| 석유제품 (133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호주의 일부 정유공장 폐쇄되어 대체 수요 증가 예상 |

□ **(소폭감소)** 반도체, 철강제품 **(대폭감소)** 선박류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반도체 (133) | 소폭감소 (0~-10%) | ○ 중국, 태국 등 경쟁국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|
| 철강제품 (61) | 소폭감소 (0~-10%) | ○ 호주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추가 조사 움직임 |
| 선박류 (746) | 대폭감소 (-10% 이상) | ○ 호주 가스전 해양플랜트·선박의 인도가 '17년에 집중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 감소 예상 |

# 6 인도 [8.8% 증가]

인도 경제제도 개혁의 안정화 및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**우리나라의 '18년 對 인도 수출은 전년대비 8.8% 증가 전망**

## 가. 2018년 시장 여건

### □ 경제개혁 속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

○ (성장률) 화폐개혁, 세제개혁 등 일련의 경제제도 개혁 후폭풍으로 '17년 경제성장률은 6.7%로 일시적으로 주춤했으나 2018년에는 반등 예상

*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7.1% → ('17e) 6.7% → ('18e) 7.4%

○ (산업) 통합간접세 제도개혁(GST)* 이후 산업생산량 부진. 제조업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회복세 기대

* 10월 산업생산지수(PMI) 발표결과, 9월(51.2)보다 낮아진 50.3을 기록하였으나, 다수의 응답자들이 통합간접세 제도가 향후 12개월 이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

* 통합간접세(GST) 개혁 : 지역별로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품목별 세율을 조정하고 전 지역의 일관적 세율을 적용토록 시정

### □ 세계 제조업 공장으로 부상,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

○ 세계 제조업 중심 지향, 기업환경 개선으로 FDI 증가세 지속

- (정책)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정책인 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'New India by 2022'를 천명하며 경제개혁 의지 표명
- (외국인 투자) 경제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. 외국인 직접투자 사상 최대치 경신 예상

* (세계은행 Easy Doing Business) 인도순위 ('17) 130위 → ('18e) 100위

### □ 한-인도 CEPA 재개정 2018년 연내 합의 예상

○ 양국 정부는 지난 9월 개최된 CEPA 재개정을 위한 3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2018년 내에 협상을 마치기로 합의

- (양허확대) 인도는 IT, 교육, 헬스케어에, 한국은 철강, 뷰티제품 등의 분야의 양허율 확대를 추진 중

## 나. 2018년 수출 환경

### □ 제조 허브화 정책,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적극 추진

○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 예산안 편성 및 산업 육성정책 시행

- 스마트시티 건설, 도로, 관개, 도시 개발, 수처리 등 인프라 프로젝트 100건 추진
- 'Make in India' 제조업 육성 캠페인으로 경제·산업 혁신

* 제조업 비중을 현재 국내총생산(GDP)의 15%에서 25%로 높이고, 자동차 및 부품, 식품가공, 제약, 섬유의류, 전기전자, 항공, 화학, 바이오 등 25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

### □ 인도의 세제 개선과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확대 기대

○ 통합간접세 도입에 따른 실질 관세율 인하

- 인도 정부는 '17년 7월 통합간접세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여 실질적 수입 상품의 가격하락 효과 제공

* 중앙과 지방 전부에 난립한 10여가지 간접세 항목을 GST(Goods and Service Tax)로 통합

○ 주요 수출상품 관세인하와 제도개선

- '17년 7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기본관세를 조정하여 PCBA, 카메라 모듈 같은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증가 기대

* (인상) 핸드폰 완성품, 충전기, 배터리, 키패드, (인하) PCBA, 카메라 모듈, 터치패널 등

- 의료기기 장비 관련 규칙(Medical Device Rules 2017) 제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 행정절차 간소화

### □ 인도 정부의 빈번한 수입규제 조치 우려는 여전

○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, 철강, 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반덤핑 또한 확대 중

* 인도의 수입제품 대상 반덤핑 부과 건수(2017년 11월말) : 360건(세계 1위)

*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 품목(상동) : 화학(18건), 철강금속(8건), 섬유(3건), 기타(2건)

## 다.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□ **(대폭증가)** 평판디스플레이, 반도체, 철강제품, 석유화학, 석유제품
**(소폭증가)** 일반기계, 자동차부품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평판디스플레이 (836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인도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텔레비전을 비롯한 전기전자 제품의 수요 증가 |
| 반도체 (831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최근 글로벌 제조사들이 인도 내 공장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 |
| 철강제품 (61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외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나, 인도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 계획과 외국자본의 현지 투자 확대로 철강수요 증가 |
| 석유화학 (21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한국산 화학제품 규제를 확대중이나,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제품수요 증가 |
| 석유제품 (133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현지 수요 지속 증가 |
| 일반기계 (71,72,75,79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책(Make in India) 및 꾸준한 FDI 유입으로 인해 기계 수요 증가<br>○ 자동차 생산 업체들의 기계 수입 급증 |
| 자동차부품 (742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한국계 K사의 현지진출 등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, 자국산 부품 선호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|

□ **(소폭감소)** 자동차, 가전, 무선통신기기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자동차 (741) | 소폭감소 (0~-10%) | ○ 인도 정부의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수입 완성차에 높은 관세 부과<br>○ 글로벌 완성차 기업 대부분이 현지에서 생산 중이며, 수입차에 대한 적음 |
| 무선통신기기 (812) | 소폭감소 (0~-10%) | ○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 및 정부의 통신망 확충 정책으로 수요는 지속 증가하나, 완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('17.7.1.) 정책 시행 |
| 가전(82) | 소폭감소 (0~-10%) | ○ 인도의 경제성장 및 소득 증가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<br>○ 한국 투자진출 S사와 L사의 현지 생산 확대 |

# 7 중동 [5.4% 감소]

유가회복으로 중동 경제성장은 전년도 하락세에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적 불안과 유가 회복 지연 가능성의 요인으로 **우리나라의 '18년 對 중동 수출은 전년대비 5.4% 감소 전망**

## 가. 2018년 시장 여건

### □ 유가회복으로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

○ 점진적인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'18년 3.5% 달성 전망

* 중동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5.0% → ('17e) 2.6% → ('18e) 3.5%

### □ 포스트 오일시대, 생존을 위한 산업다각화 노력 지속

○ 탄소분야 산업육성, 대형프로젝트 추진

* (사우디아라비아) Saudi Vision 2030, (UAE) Dubai Expo 2020 등

○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확대

- 단지 조성, 입주기업 증가 등 설비 수요 지속 확대 중

* 사우디 자유경제구역, 오만 국가산업공단 등

○ 중동 각국 민간부문 산업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시행

* (사우디아라비아) 기업 설립 승인 간소화 (30일 → 3일)
* (오만) 정부 프로젝트 로컬 자재 구매 비율 확대 ('13년 도입, '25년까지 50%)
* (쿠웨이트 등 다수국) 생산설비용 기계 도입 시 관세 면제

### □ 유가회복 지연 가능성과 정치적 불안은 위기 요인

○ 국제유가는 상승 추세이나 산유국 재정 균형유가(평균 약 US$70/배럴) 수준에는 못 미칠 전망

- '17년 하반기 이후 주요 산유국 감산에 따라 두바이유는 지속 상승하여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였으나, 미국 등 비OPEC 증산으로 단기 조정 예상

○ 역내 정치적 불안 증대는 경제 반등의 걸림돌로 작용

- 카타르 사태('17.6~ ) 장기화로 GCC내에서도 긴장 고조

* 중동 內 GCC(사우디, 쿠웨이트, UAE, 카타르, 오만, 바레인) 수출 비중 : 54.3% ('16년말)

-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재개 가능성

* 미 의회가 대이란 제재 재개여부 결정예정('18.1월)

## 나. 2018년 수출 환경

### □ 기회요인

○ (소비재 시장) 한류 붐 확산으로 소비재 중 FMCG(Fast Moving Consumer Goods)에 속한 할랄 소비재시장 확대

* 글로벌 할랄시장 상위 25개국 중 9개국(터키, 이란, 이집트, 사우디, 이라크, 알제리, 모로코, UAE, 쿠웨이트)이 MENA지역 해당 ('16년, DinaStandard 기준)

○ (프로젝트·기자재) 노후설비의 유지·보수·확장(OME), 해체 프로젝트 등 중소·중견기업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

- 민간자금 활용 프로젝트 및 민생분야 프로젝트는 지속 증가

* 수출입은행, 이란과의 FA(기본여신협정) 체결('18.8, 10조6천억원)로 기업 금융 지원 가능

○ (보건·의료 등 新수요) 민간부문 육성, 非석유부분 국가 수입원 확충 정책으로 새로운 먹거리 지속 창출

- 의료, 신재생, ICT 융합, 서비스 산업발전 장기플랜 단계별 시행

### □ 위협요인

○ 중동 9개국*의 카타르 단교 사태 장기화로 GCC 역내 및 대외 교역환경 악화

* 사우디아라비아, 바레인, UAE, 이집트, 리비아, 예멘, 몰디브, 모리타니, 코모로

- UAE 및 사우디를 경유하여 카타르로 수출되는 철강 및 건설기자재, 소비재 등 타격 불가피

○ GCC의 VAT(5%) 시행('18.1월)으로 일정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내구성 소비재인 가전,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

* 중동 內 GCC(사우디, 쿠웨이트, UAE, 카타르, 오만, 바레인) 수출 비중 : 54.3% ('16년말)

○ 자국 제조업 육성의 목적으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

* 중동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UAE 표준측량청(ESMA)은 2016년부터 식품, 화장품, 타이어, 소형가전, 조명기기 등에 대한 신규 강제인증 발표

## 다.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### □ (소폭증가) 반도체, 철강제품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반도체<br>(831) | 소폭 증가<br>(3~10%) | ○ 중동의 제조업 미성숙으로 對중동 수출은 다른 권역 대비 미미한 편이나, 이집트에 조립 공장을 둔 TV 등 전자제품 생산 업체의 한국제품 수요 증가 |
| 철강제품<br>(61) | 소폭 증가<br>(3~10%) | ○ 두바이 EXPO 2020와 GCC 국가 내 호텔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증가로 전반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했으나, 현지 화폐 평가절하로 달러화 기준 수출액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 |

### □ (소폭감소) 자동차, 자동차부품, 석유화학 (대폭감소) 일반기계, 무선통신기기, 가전, 컴퓨터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자동차<br>(741) | 소폭 감소<br>(0~-10%) | ○ 일본계열사의 가격할인, 유럽계열사의 공격적 마케팅이 지속되는 등 현지 시장경쟁이 과열 |
| 자동차부품<br>(742) | 소폭 감소<br>(0~-10%) | ○ 하이브리드 자동차 증가로 인해 내연 부품에 대한 수요 감소<br>○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부과('17.6월)에 따른 수출 감소세 지속 |
| 석유화학<br>(21) | 소폭 감소<br>(0~-10%) | ○ 저유가 기조에 따라 일본, 동남아 등 경쟁업체들의 공격적인 단가인하로 시장 초과 공급 상태 지속 |
| 일반기계<br>(71,72,75,79) | 대폭 감소<br>(-10% 이상) | ○ 저유가로 인한 재정 문제로 각종 사회개발 프로젝트 연기 및 취소 |
| 무선통신기기<br>(812) | 대폭 감소<br>(-10% 이상) | ○ 중동 수출물량 생산지를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옮긴 한국 업체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출 대폭 감소 |
| 가전<br>(82) | 대폭 감소<br>(-10% 이상) | ○ 현지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하락, 현지 정부의 고급 소비재 수입규제 지속 강화<br>○ 한국계 S사 수출물량의 이집트 현지생산으로 대체 |
| 컴퓨터<br>(813) | 대폭 감소<br>(-10% 이상) | ○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가제품의 SSD 교체주기 연장,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PC 수요 감소 |

# 8 중남미 [3.8% 증가]

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으로 중남미도 경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, 중산층 확대와 한-중미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으로 **우리나라의 '18년 對 중남미 수출은 전년대비 3.8% 증가 전망**

## 가. 2018년 시장 여건

### □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으로 경제 회복세 지속 전망

○ '18년 중남미 경제는 소비, 투자, 수출에서의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약 1.9% 성장할 것으로 기대

* 중남미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-0.9% → ('17e) 1.2% → ('18e) 1.9%

○ 제조업 활황 및 가계 소득 증가로 내수 소비 증가

- (산업) 역내 최대 제조업 국가인 멕시코와 브라질의 제조업 선행지수(PMI)가 '17.4월부터 기준(50)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제조업 활황 예상

* '17.9월 기준, PMI 지수 : 멕시코 (50.9), 브라질 (50.8)

- (소비) 가계 소득 증가로 내수 소비 증가

* '17년 기준, 멕시코 가계지출은 전년 대비 약 8.4% 증가, 브라질은 약 3.4% 증가

### □ 중남미 경제 통합 가속화 및 교역국 다변화 추진

○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과 남미공동시장(MERCOSUR)간 역내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 합의

- 시장통합시 인구 약 5억명, GDP 약 4조 2천억 달러의 거대 시장 탄생

○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은 제3국과의 신속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준회원국(Estados Associados) 제도 채택

* 준회원국은 PA회원국의 초청이나 승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, 아시아 국가와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전망

### □ 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른 멕시코 경제여건 악화 우려

○ 미국과의 NAFTA 재협상 결과는 멕시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* '16년 기준,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 대상 수출이 전체의 약 80%, 수입은 약 40%를 차지하는 NAFTA 체결의 최대 수혜국

## 나. 2018년 수출 환경

### □ 중산층 확대로 인한 소비 증가 및 한국제품 선호도 증가

○ 주요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중산층 확대

- 중산층 증가로 구매 성향은 가격에서 품질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,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가 급격히 증가

  * '15년 기준 중남미 국가의 중산층(하루 수입 10~50달러) 비중은 약 2억9천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5.5% 차지

○ 소비성향이 세분화·고급화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

- 젊은층의 IT기기에 대한 관심 증대

  *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자제품 선호가 30% vs 옷, 자전거, 신발 등 전통적 형태의 선물 선호는 8%

- 기존 가격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제품 구매 기준 변화

  *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한국 제품에 기회요인

- 소득증가로 인한 미용,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

  * 한국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출에 기회

-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에 대한 관심 증대

  * 중남미 전약에 658개의 한류 동호회가 결성돼 있으며, K-POP에서 시작된 한류는 영화, 드라마, 음식, 화장품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

### □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효과 가시화

○ (한-콜롬비아 FTA) '18년 발효 3년차를 맞이하여 관세인하 효과 확대

- 자동차, 자동차 부품, 합성수지 등 확대

  * 가솔린 자동차(1,000~3,000cc) 발효 3년차 효과로 35%에서 24.5%로 관세 인하

○ (한-중미 FTA) '17년 체결 및 가서명 완료

- 자동차와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뿐만 아니라 화장품, 의약품, 알로에 음료, 섬유, 자동차부품 분야도 대폭 개방 예정

- 중미 측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면서 한국 기업의 에너지, 인프라, 건설 등 분야 진출이 원활해질 전망

## 다.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### □ (대폭증가) 반도체, 철강제품 (소폭증가) 자동차, 자동차부품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반도체<br>(831) | 대폭증가<br>(3~10%) | ○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진작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확대 |
| 철강제품<br>(61) | 대폭증가<br>(10% 이상) | ○ 철강제품의 주요 수요처인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이 '18년에도 지속 증가할 전망<br>* '17.1-8월까지 브라질 자동차 생산량은 174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.5% 증가(자료원 : 브라질자동차산업연맹)<br>○ 경제성장에 따른 주요국 건설업 경기 반등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철강수요 대폭 증가 |
| 자동차<br>(741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현지 경기회복으로 인해 중산층이 증가하여 중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한국車의 시장점유율 상승 |
| 자동차부품<br>(742) | 소폭증가<br>(3~10%) | ○ 현지 자동차 생산·판매 증가세가 지속되어 부품 수요도 동반증가<br>* 다만, 멕시코의 경우 NAFTA 재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연기/보류하여 자동차 생산량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 |

### □ (소폭감소) 일반기계, 무선통신기기, 컴퓨터, 석유제품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일반기계<br>(71,72,75,79) | 소폭감소<br>(0~-10%) | ○ 경기 회복으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여 기계수요도 확대 전망이나, NAFTA 재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주요 제조국인 멕시코 설비 투자 보류 중 |
| 무선통신기기<br>(812) | 소폭감소<br>(0~-10%) | ○ 중국 H사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여 시장경쟁 과열<br>○ 콜롬비아 세제개혁*의 영향 등으로 고급 소비재인 무선통신기기의 수요가 감소<br>* 기존 16%에서 19%로 부가가치세 인상('17.2월부터 적용) |
| 컴퓨터<br>(813) | 소폭감소<br>(0~-10%) | ○ 중국산 컴퓨터(R사, A사 등)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중<br>* 칠레의 경우,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컴퓨터(레노버, Acer 등)가 90%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나타냄 |
| 석유제품<br>(133) | 소폭감소<br>(0~-10%) | ○ 대체재인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석유제품 수요는 감소하는 가운데 품질, 가격경쟁력을 갖춘 美, 中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|

# 9 CIS [10.4% 증가]

CIS 지역의 경제 안정화, 주요국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2018 러시아 월드컵 개최 특수로 **우리나라의 '18년 對 CIS 수출은 전년대비 10.4% 대폭 증가 전망**

## 가. 2018년 시장 여건

### □ CIS 지역 경제는 러시아 경제의 안정화로 회복세 전망

* CIS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0.4%→ ('17e) 2.1%→ ('18e) 2.1%
* 2014년 이후 저유가 장기화,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루블화 폭락으로 이어진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CIS 지역은 장기 경기침체를 겪었음.

○ **(러시아)** 유가상승, 민간소비 및 투자회복 등에 힘입어 안정화 유지

* 러시아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-0.2%→ ('17e) 1.8%→ ('18e) 1.6%

○ **(카자흐스탄)** 유전생산 가속화,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호조, 공공투자 및 중국으로부터 FDI 유입 확대

*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1.1%→ ('17e) 3.3%→ ('18e) 2.8%

○ **(우크라이나)** 동부지역 화물운송 봉쇄,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내수회복은 시기상조로 2017년 2%, 2018년 3%대 성장 예상

*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2.3%→ ('17e) 2.0%→ ('18e) 3.2%

○ **(우즈베키스탄)**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(외환자유화, 환율 단일화 등), 재정지출 확대

*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7.8%→ ('17e) 6.0%→ ('18e) 6.0%

○ 기타 국가들도 러시아 경기회복, 역외권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 예상

* 벨라루스 0.7%, 아제르바이잔 1.3%, 키르키스스탄 3.8%, 투르크메니스탄 6.3%, 아르메니아 2.9%

### □ EAEU(유라시아경제연합)와 역외국가간 경협 강화

○ '05.1월에 출범한 EAEU는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이스라엘, 인도 등 타경제권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추진에 나서고 있음

## 나. 2018년 수출 환경

### □ CIS 주요국 경기부양 및 개발 프로젝트 추진

○ 러시아 대선·우즈벡 외환자유화 단행 등에 따른 경기부양

- (러시아) '18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점진적인 경기부양정책 기조 유지
  * '12년부터 집권 중인 푸틴은 '18년 대선에서도 무난하게 권좌 유지 전망이며, 급진적인 경제개혁 정책 대신, 현재의 점진적 경제개혁을 유지할 전망

- (우즈벡) 신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기업경영 개선 및 외환자유화 정책 추진
  * 그동안 외국인 투자진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외화환전 지연, 과실송금 제한, 이중 환율 등 개선

○ 러시아 신동방정책 및 극동러시아 개발 가속화

- 극동개발과 아태지역 협력을 통해 러시아 국토 균형발전을 꾀함.
  * 선도개발구역(TOR)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(Free port) 제도를 통해 수출·투자환경 개선

-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 연계 기술협력, 투자진출, 프로젝트 참가 확대
  *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-러 포럼, 프로젝트 상담회 개최 등 협력사업 발굴 및 수행 (KOTRA 내 북방경제협력전담반 구성)

### □ 2018 러시아 월드컵(6.14~7.15) 개최 특수

○ 개최지 미화 및 정비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 활황

- 인프라 정비, 공공시설 보수 등

○ 관광객 방문에 의한 내수 진작 효과

- 월드컵 기간 약 1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예상되어, 모스크바 평균 호텔 및 식당을 통한 가치창출은 약 50억 달러 예상

### □ 한-EAEU(유라시아경제연합) FTA 협상 본격추진

○ '17년 9월 한-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, 체결 시 수출 규모가 약 18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
  * EAEU 회원국 : 러시아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,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

## 다.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□ **(대폭증가)** 자동차, 자동차부품 **(소폭증가)** 일반기계,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가전, 컴퓨터, 섬유류, 철강제품, 석유화학, 석유제품, 선박류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자동차 (741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현지 자동차 보급률(1000명당 358대)은 유럽 대비 42% 수준으로 구매 여력 큼 |
| 자동차부품 (742) | 대폭증가 (10% 이상) | ○ 현지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라 부품 수입도 증가세<br>* '17.1월~7월 러 자동차 생산량 20.5% 증가, 부품수입 20.7% 증가 |
| 일반기계 (71,72,75,79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경기회복으로 기계설비 수요 증가 |
| 반도체 (831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러 전자·IT제품 제조생산 증가로 전자부품 수요도 확대 |
| 무선통신기기 (812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현지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 및 한국 제품 인지도 증가 |
| 가전 (82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러시아 가전시장 수요 지속 증가 전망 |
| 컴퓨터 (813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러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현지 제조업이 강화됨과 동시에 전자 및 IT 제품 생산성 호전 |
| 섬유류 (4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'17년 상반기 對시베리아 한국 합성 섬유 수출량은 약 60% 증가<br>○ 최근 10년간 러시아산 제품의 점유율이 29% 정도로, 시장 제품의 71%가 수입품이며, 수입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|
| 철강제품 (61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현지 경제 회복 및 환율 안정세로 수입 증가세 유지<br>○ 카자흐스탄 '15-'19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추진, 제조공장 등 건설에 따라 철강 제품 수요 확대 |
| 석유화학 (21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CIS 각국 정부의 현지 생산 장려 정책으로 원료 수요 증가<br>○ '17.9월 석유화학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 폐지 |
| 석유제품 (133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엔진유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|
| 선박류 (746) | 소폭증가 (3~10%) | ○ 한국은 對러시아 선박 수출국 1위국('16년 기준)으로 금년에도 38%의 시장 점유율 차지('17년 9월 기준)<br>○ 한국 S중공업과 러시아 Z조선소와 기술지원 협약체결('17.9월) |

□ **(소폭감소)** 평판디스플레이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평판디스플레이 (836) | 소폭감소 (0~-10%) | ○ 완제품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, 현지 업체의 부품이 수입산을 대체 |

# 10 아프리카 [0.4% 증가] * 사하라 이남 (북아프리카 제외)

아프리카 경제는 원자재 가격 회복, 산업화 전략 추진으로 성장이 예상되나 반정부 시위 등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**우리나라의 '18년 對 아프리카 수출은 전년대비 0.4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**

## 가. 2018년 시장 여건

### □ 원자재 가격 회복, 산업화 전략으로 회복 지속

* 경제성장률(IMF) : ('16) 1.4%→ ('17e) 2.6% → ('18e) 3.4%

○ (원자재 가격 회복) '18년에도 '17년에 이어 회복세 예상되어 아프리카 광산업 경기호조세가 지속 전망

* 단, 국제 카카오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예견된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카카오수출세를 잠정 철폐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타개 방안 모색

○ (산업화 전략)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한 제조업 확대, 가뭄 해갈로 인한 농업 생산 회복으로 비자원 국가도 성장세 유지

### □ 수단 경제제재 해제, 아프리카 경제 통합 움직임 가속화

○ (수단 경제제재 해제) '17.10월 美국무부가 20년째 이어온 對수단 경제제재 전격 해제하면서 수출입활성화 예상

- 무역거래 활성화,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이 예상되며, 외환결제(in&out) 재개시 수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
○ (자유무역협정) 동남아프리카 26개국 내 교역 자유화 추진을 위한 TFTA (Tripartite FTA) 출범 노력 지속, 타결시 역내 교역 활성화 기대

* TFTA : 아프리카의 기존 3개 지역경제블록(COMESA, EAC, SADC) 통합 협정으로 타결시 아프리카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공동체 출범

### □ 반정부시위, 소요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상존

○ 아프리카는 높은 독재 정권 비율로 정치 혁명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다민족 국가 비율도 높아 주요 선거를 전후로 사회 혼란이 대두

* 남아공은 '17년 말 집권여당 대표 선출 이후 '19년 대선까지 정치적 긴장상태 지속 전망

## 나. 2018년 수출 환경

### □ (시장확대) 도시화, 신흥 소비계층 부상, 온라인 플랫폼 성장

○ 아프리카 도시 소비층은 2040년까지 2억 5천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시장 규모는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(Amethis Finance)

*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도시화율(%, UN) : ('10) 36.4% → ('30e) 45.9% → ('50e) 56.7%

-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젊은 층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며 브랜드, 트렌드, 품질 중심으로 소비 경향 변화하고 E-Commerce 시장 급성장

* 나이지리아가 Jumia, Konga 등 대형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온라인 시장 선도

### □ (산업) 에너지, 운송, 상하수도 등 인프라 및 제조업 시장 지속 성장 전망

○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노력에 따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조달 프로젝트 지속 추진으로 관련 건설, 중장비 수요수출 증가 기대

- 에티오피아, 모잠비크 등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건설 사업이 추진중으로 건설 자재 수요 급증

- 탄자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저렴한 중국제품의 잦은 고장으로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제품의 대체 수요 가능성

### □ (소비재) 시장규모 지속 확대 중으로 소비재 수요 급증

○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규모는 '21년까지 연평균 10% 이상 고성장 전망

* ('16) 3,505억 달러 → ('17e) 3,558억 달러 → ('18e) 3,851억 달러 → ('19e) 4,375억 달러

○ 좌판, 길거리판매 등 비공식적 판매 루트에서 대형 쇼핑몰,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채널 다양화

* '13년 80억 달러 수준이었던 아프리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'18년 500억 달러로 약 63% 이상 성장 전망 (Deloitte)

○ 글로벌 기업의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 본격화

- 월마트, 까르푸 등 대형 유통채널, 의류 및 식품 프랜차이즈 등

* (유통) 월마트의 남아공기업 Massmart 인수('10년) 및 까르푸의 코트디부아르 진출('15년)

* (프랜차이즈) 의류(H&M, Forever 21), 식품(크리스피도넛, 스타벅스) 등

## 다.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### □ (소폭증가) 일반기계, 자동차, 자동차부품, 평판디스플레이, 무선통신기기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일반기계 (71,72,75,79) | 소폭 증가 (3~10%) | ○ 정치적 불안으로 건설 및 인프라 개발 둔화가 예상되나, 역내 약 25개국이 산업화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설비·기계에 대한 수요 지속 증가 |
| 자동차 (741) | 소폭 증가 (3~10%) | ○ 1,500cc 이하 소형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지속 확대중<br>○ 한국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는 가운데 H사가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할 전망 |
| 자동차부품 (742) | 소폭 증가 (3~10%) | ○ 현지 중고차 수요 증가 및 현지산 자동차 판매 호조에 따라 부품 수요도 동반 상승 |
| 평판디스플레이 (836) | 소폭 증가 (3~10%) | ○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현지 디지털 시장 성장 등에 힘입어 평판디스플레이 수입 수요 증가 |
| 무선통신기기 (812) | 소폭 증가 (3~10%) | ○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85%로 매우 높은 편이며 향후에도 지속 성장할 전망 |

### □ (소폭감소) 컴퓨터, 철강제품, 석유제품

| 품 목 | 전 망 | 수 출 증 감 요 인 |
|---|---|---|
| 컴퓨터 (813) | 소폭 감소 (0~-10%) | ○ 산업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저가 컴퓨터 선호 경향 |
| 철강제품 (61) | 소폭 감소 (0~-10%) | ○ 현지 각국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과 도시화 진전에 따라 건설용 철강재수요는 증가하나, 역내 최대 수출대상국인 남아공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체 수출량은 소폭 감소 예상 |
| 석유제품 (133) | 소폭 감소 (0~-10%) | ○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나, 부정부패, 취약한 인프라 구조, 제한된 기술인력 등으로 시장 성장이 제한적 |

작 성 자

- 북미지역본부 차성욱
- 중국지역본부 이지훈
- 유럽지역본부 이수영
- 일본지역본부 김한나
- 동남아·대양주지역본부 김준성
- 서남아지역본부 손호성
- 중동지역본부 이광일
- 중남미지역본부 정석수
- CIS지역본부 정혜주
- 아프리카지역본부 정미성
- 무역동향분석팀 박영훈



Global Market Report 17-053


# 2018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


발 행 인 ▌김재홍
발 행 처 ▌KOTRA
발 행 일 ▌2017년 12월
주 소 ▌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(06792)
전 화 ▌02-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▌www.kotra.or.kr
문 의 처 ▌무역동향분석팀 (02-3460-7583)
I S B N ▌979-11-6097-473-7 (95320)



Copyright © 2017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# 2018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

# Global Market Report

kotra
Korea Trade-Investment Promotion Agency